

관장님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 김용익입니다.

저희 졸업생들이 이번 1월 9일부터 관장님 소유의 건물에 있는 대안 공간 풀에서 전시를 엽니다. 그 중 한 학생이 화장실 공간을 이용한 작업을 선보일 예정인데 관장님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할듯하여 이 학생의 작업을 제 나름대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이름이 임희령입니다)은 그동안 계속 성과 관련된 우리의 위선적 허위의식을 주제로 삼아 작업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성을 드러내놓고 뽐내기 얘기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작업을 해왔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넘쳐나는 것이 포르노입니다. 그리고 인기 연예인의 누드사진 휴대폰 서비스는 이제 화젯거리도 안될 지경이 되었고요.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와중에서도 여전히 섹스,성에 관한 얘기는 드러내놓고 얘기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돼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섹스관련산업이야말로 변창일로에 있는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이죠.

임희령은 이 모순된 현실을 주목하고 그것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임희령의 이번 작업은 제가 보기엔 “화장실의 낙서화”라고 이름 붙일수 있는 것입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면 성적인 낙서화를 왕왕 볼수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은 자신의 신체의 성적인 기관과 적라나하게 만나는 밀폐된 공간 입니다.거기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인 판타지를 글이나 그림으로 풀어놓습니다. 임희령의 그림은 이것과 유사합니다.

임희령이 굳이 화장실에 이런 성적인 그림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밀폐된 공간에서만 풀어놓을수 있을뿐 공공적인 공간에서는 심하게 제약받는 우리의 성적 담론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보이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장실 낙서화”를 이번 저희의 전시에 굳이 포함시키는 이유는 전시회라는 미술행위에 포함 시키므로써 화장실 낙서화가 발언하는 성적인 담론을 공공영역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임희령의 작업에 대해선 여러가지 다른 의견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의 작업이 그 의도를 성공적으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관되게 성에 관한 우리의 이중적, 위선적의식을 드러내려하고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확인 할수 있습니다.

제 글이 좀 재미없네요. 다시 읽어보니 “화장실 낙서화가 발언하는 성적인 담론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내겠다”는 말도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고요. 요 부분만 좀 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공중화장실에 갔을 때 낙서화를 봤다고 합시다. (저는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상가 화장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만) 지독히 외설스러운 그림과 글이 써있지요. 과장되어 있기도 하지만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적라나하게 드러내는 그 그림을 우리는 호기심과 흥미로 봅니다. 그러나 만일 그 그림이 화장실 밖으로 외출을 하여 공중의 영역에 들어라도 올작시면 그 그림은 눈썰을 찌푸리게하는 “놈”으로 신세가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이 괴리감이 어떤 사람에겐 당연하겠지만 임희령에게는 문제꺼리가 된겁니다. 그것을 문제꺼리로 삼는 임희령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눈썰을 찌푸리게 만드는 우리안의 윤리, 혹은 도덕 의식”을 문제 삼는것이지요. 그 윤리, 도덕의식이 자기 방어 행위를 하면서 다른

잣대를 가진 사람들을 지나치게 억압하려 든다는게 문제지요.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이렇게 억압하려 하는 세력이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세력일 때 특히 더 문제가 되지요. 화장실 낙서화가 발언하는 성적인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억압을 받는 편에 있다고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그 낙서화는 또 다른 억압자가 될수도 있어요. 예컨대 남성 성기 우월주의의 요소가 분명 거기엔 있고 따라서 여성 성기에 대한 억압자가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조차 허용하지 않는 원초적, 압살적 억압, 그게 이시점에서선 문제라는 의식이 임희령의 작업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작업해왔음을 임희령의 지도교수로서 확실히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술창작문화발전에 도움을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2004. 1. 5

임희령의 지도교수 김용익 드림.